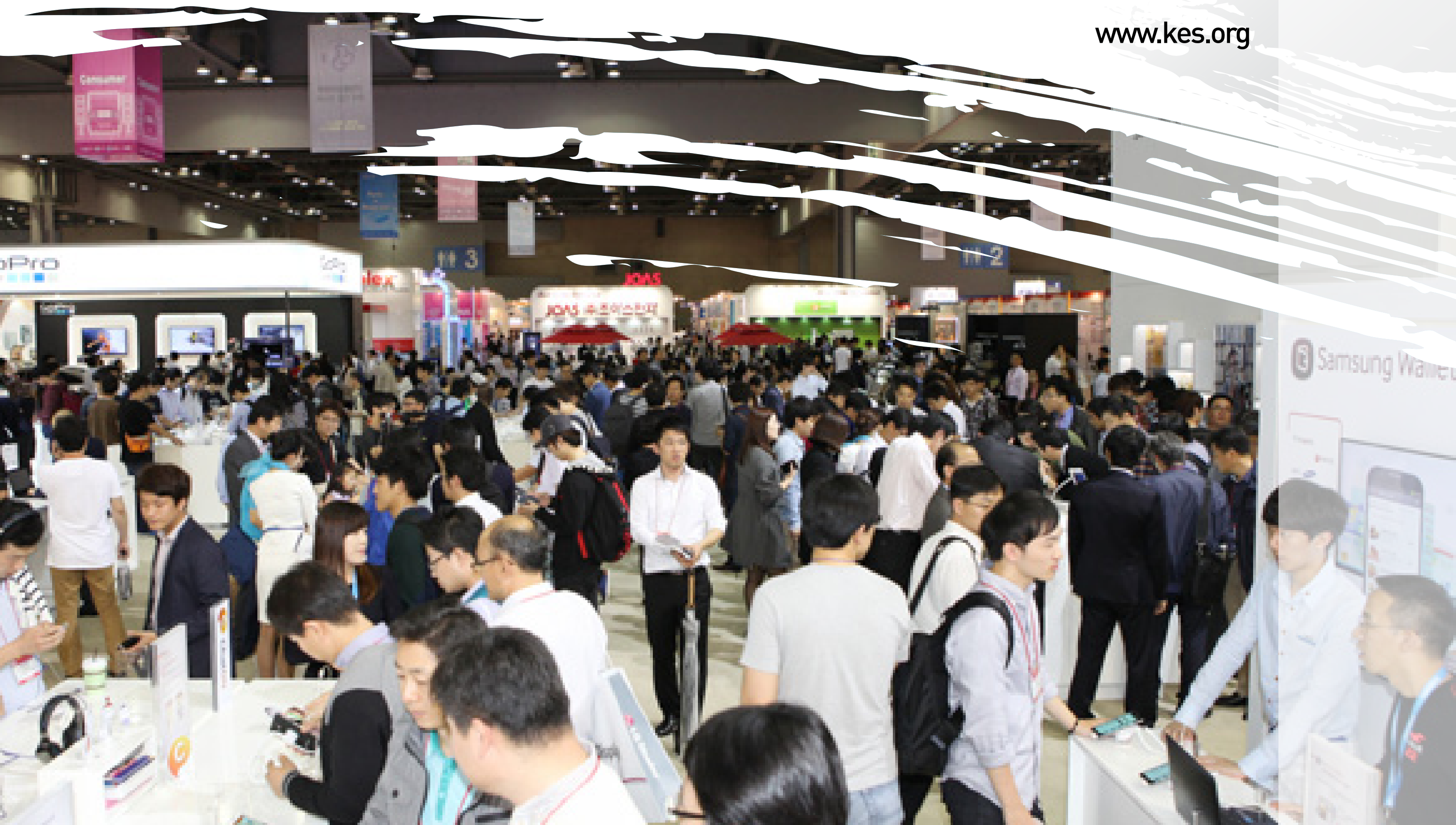
SHOW REPORT

한국전자산업대전 결과보고서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2013

www.kes.org



Report on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2013
한국전자산업대전 결과보고서

CONTENTS

04 Outline
06 Opening
08 Overview
12 Gala Show
14 KES Innovation Awards
16 SAMSUNG
18 LG
20 ICT & Multimedia
21 SW & Mobile & Convergence
22 Parts & Materials
24 World 3D EXPO
25 Premium Enterprise
26 Digital Broadcasting
27 Smart Convergence
28 Techno-Fair 대학관
30 Pavilions
32 iMiD
33 iSEDEX
34 Media Coverage
36 Sales Fair
38 2014 참가 안내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2013 OUTLINE

행사명
2013『한국전자산업대전』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3. 10. 7(월) ~ 10(목), 10:00~17:00
장소 : KINTEX (고양시 일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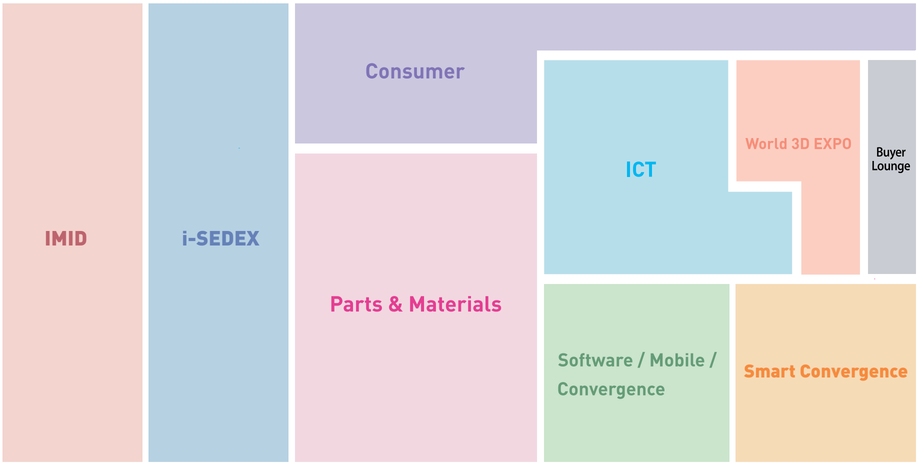
주 제
Creative IT, Be in IT! (창조적인 IT, 그 세계로 오세요!)

전시규모
면적 : 53,541m²(킨텍스 제1전시장 1홀~5홀)
참가업체 : 국내 579개사, 해외 181개사 총 760개사
참관객 : 국내 53,060명, 해외 3,127명 총 56,187명
상담액 : 약 18억 달러

전시분야
Consumer, ICT & Multimedia, Parts & Materials, SW & Mobile
Smart Convergence, Display, Semiconductor

추진 기관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
주관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시관 구성



부대행사
Creative Futures Forum
ICT산업전망 컨퍼런스2014
반도체시장동향 세미나
반도체장비 안전표준 교육
KDIA 임원사 VIP 부스 투어
기술이전설명회 & 벤더세미나
스마트 융합기술 세미나
성균관대-아주대 보유 기술설명회
한.UAE 반도체 산업 협력사업 구매전략 세미나
한국몰렉스 신제품 미디어 브리핑
한국첨단산업현황 및 전략
서울 마곡 R&D 산업단지 투자설명회
IMID 2013 비즈니스 포럼
LG전자 사이니지 세미나
삼성전기 신제품 무선충전 세미나
Defend Cyber Attacks by Hacking Knowledge
아날로그반도체리더스 포럼
최신 마이크로 접합 및 패키징 기술
SiC 및 GaN 전력반도체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분석 세미나
EMAP/ISMP 2013 등 30여회

구매 및 수출상담회
바이어 매칭 비즈니스 상담회(KES)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iMiD)
해외 바이어 초청 1:1 비즈니스 상담회(iSedex)

이벤트
전자 · IT의 날 유공자 시상식
KES Innovation Awards 시상식
삼성전자, LG전자사업장 해외바이어 투어
갈라쇼 (글로벌 바이어 초청 만찬)
매트릭스 사진체험관
참관객 경품행사

▲2013 한국전자산업대전 개막식 테이프커팅

2013 한국전자산업대전 개막식, 첨단IT 총출동

2013 한국전자산업대전 개막식에는 국내 최대 전자·IT 산업 전시회라는 명성에 걸맞게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실장을 비롯해 학계 및 각계 인사 등이 모여 자리를 빛냈다. KEA 권오현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개막식에서는 제8회 '전자·IT의 날' 유공자 시상 및 환영사 발표도 이어졌다. 환영사에는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실장이 함께해 기술혁신과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전자·IT 관련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참석한 인사들은 테이프 커팅에 이어 전시회를 참관하며 참가업체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고 김재홍 차관, 최재유 실장, 권오현 회장을 비롯하여 전동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 김기남 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 등 20여명의 국내외 전자업계 관련 인사들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권오현 회장은 LG전자 전시부스 입구에서 3D 전용 안경을 쓰고 LG의 3D 비디오월을 보며 흥미로워 했고 김기남 삼성 Display 사장도 LG Display가 마련한 전시부스를 눈 여겨 본 뒤 "LGD의 커브드 OLED 패널이 지난해보다 많이 진보했다."고 소감을 밝히는 등 CEO들이 잇따라 경쟁사의 첨단 기술에 남다른 관심을 드러내 주목을 받았다.

VIP 투어에 참여한 20여명의 전자업계 CEO 및 관련 인사들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분야의 강세로 지난해보다 국내 전자정보통신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높아진 전시회의 위상에 크게 호응했다.

▲KEA 권오현 회장 개회사

▲개막식 전경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환영사

▲개막식 사회자 이재홍 아나운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주)씨케이앤비 배기혁 대표

▲산업훈장 동탑을 수상한 LG전자(주) 김영수 상무

▲산업포장을 수상한 (주)트레이스 이광구 대표

▲산업훈장 철탑을 수상한 (주)티에프이 문성주 대표

▲VIP투어를 하며 즐거워하는 권오현 회장

▲전자·IT의 날 훈포장 수상자 기념사진

▲개막기념 오찬 리셉션 참석 주요인사

▲3D Expo 경진대회 수상작을 둘러보는 주요인사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실장 환영사

▲홍보동영상 시청 주요인사

▲대기업관 방문 주요인사

최첨단 전자 • IT 융합 제품의 향연, 2013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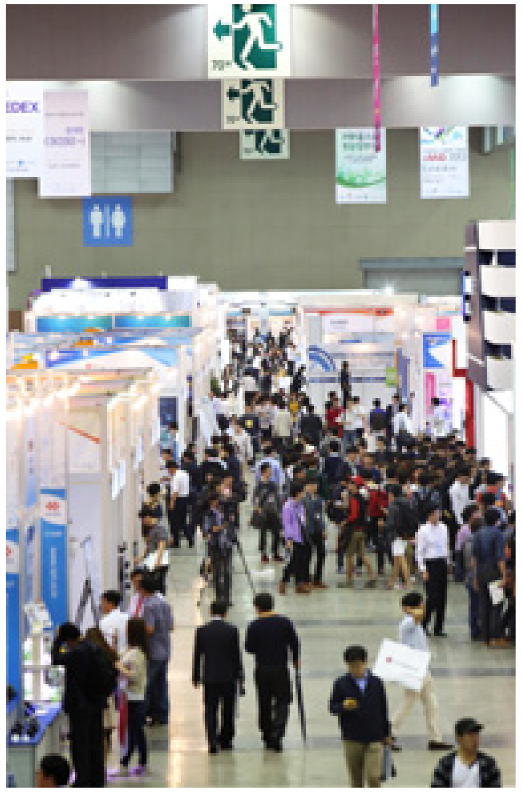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 2013 한국전자산업대전(Korea Electronics Grand Fair 2013)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13 한국전자산업대전' 은 1969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 44회를 맞으며 대한민국 대표 전자 · IT전시회의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Creative IT, Be in IT"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Panasonic, Sanyo, Audi, Nikon, Molex 등 글로벌 기업을 대거 유치하고 해외 바이어 유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전시회(한국전자산업대전)와 대규모 국제 IT컨퍼런스 동시 개최로 창조적 IT융합 이벤트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글로벌 TOP전시회로 그 명성을 공고히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또한 벤처기업협회(KOVA),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대학기술이전협회,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기업관(NEP) 등 유관기관 공동관이 확대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다.

이번 2013 한국전자산업대전은 해외기업 181개 사를 포함한 760개사의 참가를 유치하고 바이어 약 3,000 여명 포함 56,000여명의 참관객을 유치했으며 수출상담액은 1,800백만 달러, 계약액은 250백만 달러를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시회에 걸맞는 행사결과를 일궈냈다.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다양한 제품들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 삼성전자는 '놀라움의 여정' 이라는 주제로 갤럭시노트3와 기어, UHD TV, 스파클링 냉장고를 비롯한 생활가전 등 자사의 기술력을 담은 제품들을 전시하고 방문객을 맞았으며 LG전자는 'LG, 세계 최초부터 세계 최고까지'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올레드 TV, 울트라HD TV, G2, 뷰3, G Pad, 정수기 냉장고 등 전략 제품을 대거 공개하며 경쟁을 가속화 했다.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인 제품군은 TV였다. 삼성전자는 또렷한 화질로 'KES Innovation Award' 를 거머쥔 85형 UHD TV를 비롯해 독특한 프레임 디자인으로 설계된 커브드 올레드 TV를 앞세웠다. 특히 지난 8월 서울에서 '삼성 UHD TV와 함께 하는 멸종위기 동물전(展), UHD ZOO' 을 통해 55형 커브드 올레드 TV를 다시 한 번 선보이며 큰 관심을 끌었다.

LG전자는 세계 최초의 77형 UHD 올레드 TV를 국내 시장에 처음 공개하며 스마트 컨슈머의 높아진 안목에 부응했다. 또한 LG전자의 올레드 기술에 디자인 컨셉을 강조한 '갤러리 올레드 TV' 를 전시해 액자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TV를 시청할 때 한 폭의 명화를 감상하는 듯 한 감동을 방문객에게 전달했다.

뿌리부터 열매까지, 산업트리를 한 번에 보는 전시회 "Interrelated"

부품, 소재, 장비부터 멀티미디어, ICT, S/W, Mobile, 스마트융합 등 뿌리부터 열매까지 긴밀하게 얽혀있는 전자 · IT산업트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전자 · IT 종합 전시회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자 · IT 제품의 기술 경합이 벌어지는 전시회 "International"

미국(퀄컴, 몰렉스), 캐나다(브로커포럼), 유럽(아우디), 스위스(센시리온), 일본(파나소닉, 요꼬가와, 산요, 세이렌, 전기화학공업) 중국(한스레이저, 우한화공신, HQEW, 부품소재공동관) 삼성, LG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외 기업의 최첨단 IT • 전자제품이 펼쳐지는 기술 경연의 장으로서 역할을 했다.

흥미로운 제품이 쏟아지는 전시회 "Interesting"

3D 실사프린팅, 디제이 믹싱카, 매트릭스 사진체험, 플렉시블 & 웨어러블 디바이스, 상용 홈서비스 로봇, 스마트행어, 스마트시티 체험관 등 흥미로운 제품과 새롭고 신기한 기술이 쏟아지는 축제로 관련 학계 및 전문가들과 대중이 함께 즐길 수 있었다.

수요와 공급의 순환교류가 가능한 전시회 "Interactive"

국내 최초 애니로보 인터랙티브 아쿠아리움, 동작인식 가상마우스, PT 협업시스템, 차량 자동유도 등 인터렉티브 컨트롤이 가능한 최첨단 기술과, 산업계(완제품, 컨설팅)–학계(원천기술, 졸업작품, BI입주기업)–연구계(R&D, 특허)가 모두 참가하고 수요과 공급의 순환교류가 가능한 만남의 장이었다.

창조경제 실현은 '전자 · IT산업의 융합기술'로부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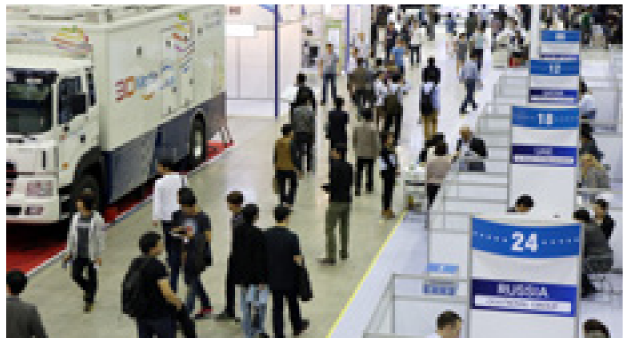
2013 한국전자산업대전의 개막과 더불어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이목을 끌었다. 'Creative Futures Forum'에서는 삼성전자 홍원표 사장의 'ICT 글로벌 · 미래전략'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Global Change Ltd. 패트릭 딕슨 회장이 'ICT산업의 미래와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더불어 국내외 전자 · IT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졌으며 '창조경제로 실현하는 국민행복, 이를 위한 ICT의 역할'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열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ICT 융합 기술전략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해 심층 있는 논의를 나누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 밖에 IT산업전망 컨퍼런스 2014,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와 신제품 발표 및 세미나 등이 열려 우리나라 ICT산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알아보고 미래 성장동력 ICT를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을 나누었다.

올해는 또한 최근 국내외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스마트 융합기술 등을 선보인 '스마트융합산업전'과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와 함께 기획된 'Techno-Fair 대학관' 등 특별전이 구성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전자 · IT산업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

관련 산학연을 비롯해 일반 참관객을 위한 이벤트도 주목받았다. 지펠냉장고, UHD TV, 버블샷3 드럼세탁기, 갤럭시노트, 디오스 G패드 등 삼성전자, LG전자의 최신제품들이 쏟아지는 경품이벤트를 매일 열어 참관객들에게 행운을 선물했다. 또한 국내 최초 30여대의 최신 카메라가 참관객의 액션을 순간 포착하여 실시간 타임슬라이드로 그려내는 매트릭스 사진체험관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관 운영으로 참관객들에게 더욱 큰 재미와 흥밋거리를 제공했다.



▲KEA 남인석 부회장 환영사

▲해외바이어 대표 축사

▲Gala Show 전경

Gala Show 특별한 네트워킹, Gala Show 현장

10월 7일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는 개막식을 기념하는 대규모 갈라쇼가 열렸다. 카타르, 프랑스, 러시아, 필리핀, 일본, 중국 등 글로벌 바이어와 참가업체 대표 및 정부 · 지자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모인 이번 갈라쇼는 개그맨 김성원의 진행으로 레이저 퍼포먼스, 소프라노와 테너의 공연을 잇는 월드 주(酒인) 세리모니 및 인기 가수 주얼리의 K-POP공연으로 풍성하게 준비해 참석 귀빈들을 더욱 즐겁게 했다. 또한 해외 바이어와 국내참가업체 관계자는 다양한 경품행사와 함께 만찬을 즐기며 화기애애한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창의성과 혁신성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선정된 18개사 20개 제품에 대한 KES Awards 시상식도 진행되었다.

▲사회자 김성원(개그맨)

▲KES Innovation Awards 시상

▲화려한 레이저 퍼포먼스

▲갈라쇼에 참석한 귀빈들

▲갈라파티를 즐기는 해외바이어들

▲K-pop 스타 주얼리의 축하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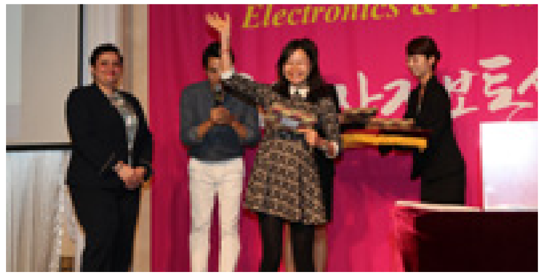
▲월드 주(酒) 세리머니를 통해 화합의 의미를 나누는 참가국 대표들

▲갈라파티를 즐기는 해외바이어들

▲갈라파티를 축하하는 소프라노의 공연

▲갈라파티를 축하하는 테너의 공연

▲개그맨 김성원과 갈라파티를 즐기는 흥겨운 해외바이어들


▲참가자를 대상으로 펼쳐진 경품 추첨 행사

KES Innovation Aw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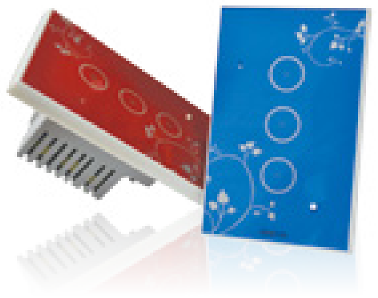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진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18개사 20개 제품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2회 KES 어워드' 제품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전자 · IT 분야에 창의성과 혁신성이 돋보이는 이번 수상 제품은 최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기술측면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에게 시상하는 신제품(Best New Product)부문, 소비자의 감성적인 매력도와 인체공학적 편의성, 제품의 기능성을 고려한 우수 디자인 제품에게 시상하는 디자인(Best Design)부문, 창의적 아이디어로 기존 제품들과의 차별성 및 우수성을 높게 평가 받은 제품에게 시상하는 콘텐츠(Best Contents)부문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선정되었다.

Ⅰ New Produ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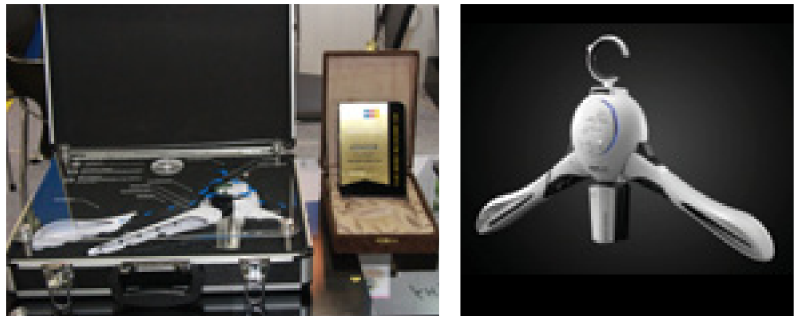
▲삼성전자의 커브드 OLED TV(모델명:KN55S9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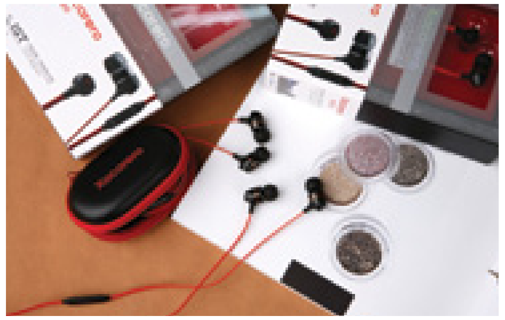
▲LG전자의 곡면 OLED TV(모델명:55EA9800)

▲천정에 설치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음을 전달하는 뮤솔버스의 루시드스피커(모델명:LS 80M)


▲세계 최초 자체 전원공급기술을 적용한 원격조명제어 스위치 반디통신기술의 반디온(모델명:BDT100)

▲방열효과가 우수하고 초경량화한 아이스파이프의 LED공장등(모델명:CR2000)


▲옷의 악취 및 세균을 제거하는 신개념 의류관리기 에이치엔씨의 스마트행어(모델명:SH-P1000)


▲소리가 직접 귀에 닿지 않아 음악을 오래 들어도 귀가 피로하지 않은 피에스아이코리아의 세계 최초 역방향 스피커방식 이어폰(모델명:PS-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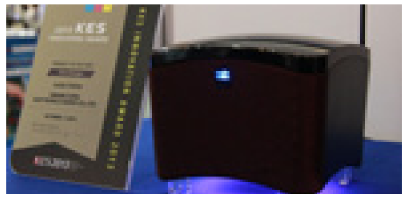
Ⅱ Best Design

▲인체공학적 후면 키 적용과 가장 얇은 베젤 크기(2.65mm)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LG전자 스마트폰 G2(모델명:G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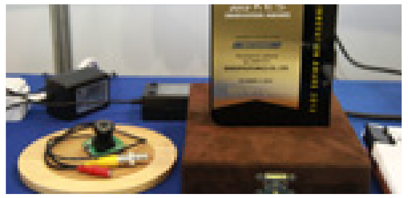
▲창의적이고 절제된 단순미와 Clean Back을 구현한 삼성전자 S9 울트라 HDTV(모델명: 85S9)

▲얇고 가늘어 공간 활용능력이 우수하고 깔끔한 색으로 럭셔리한 장소에 어울리는 엑셀웨이의 슬림스피커(모델명:STA1000TBR)

▲고급스런 알루미늄으로 디자인된 초이스테크롤로지의 엑스포인터 펄스 스타일러스(모델명: XPS300)


▲사용자 편의와 무드 등이 적용된 한국광성전자의 Audio Station(모델명:Audio Station)

Ⅲ Best Con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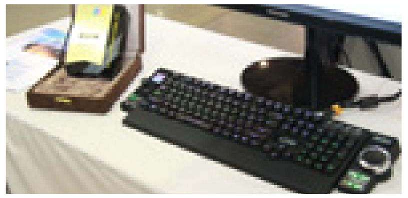

▲ 정확한 영상처리 알고리즘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전방위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나노포토닉스의 전방위카메라(모델명:pCAM4101)

▲바다동물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레이그리프의 애니로보(모델명:리얼토크 디지털 아쿠아리움)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앱까지 분석이 가능한 비바엔에스의 아르고스(모델명:ARG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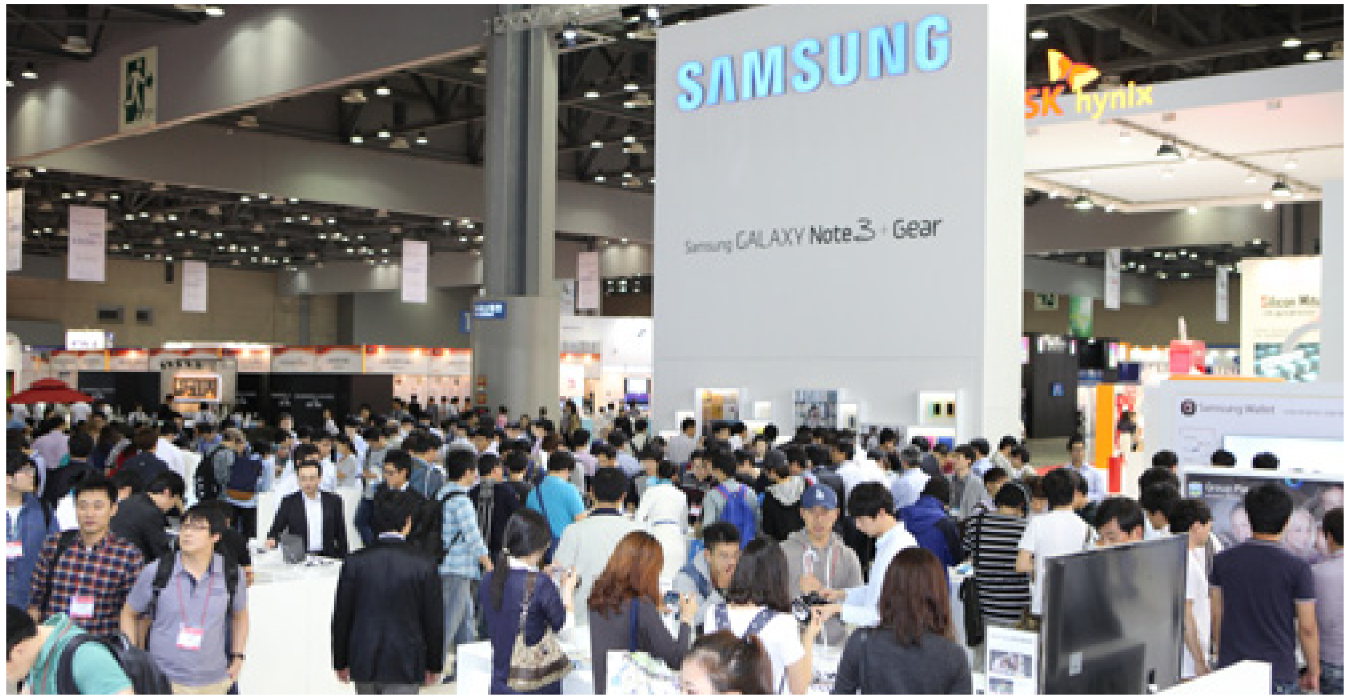
▲화면공유 및 4개 화면분할이 가능한 프리젠테이션용 협업시스템인 씨앤씨의 클릭쉐어(모델명: ClickShare)

▲최적의 선명도와 무소음 설계를 적용한 아이씨쥐의 Trin LED 스크린(모델명:T1310)


▲키보드 1대로 컴퓨터 2대를 제어하는 아이프로스아이엔씨의 레티스(모델명:LETIS)

▲국내 최초로 교육용으로 개발된 코리아디지탈의 기상관측 시스템(모델명:KWS-2000)

▲블랙박스에 운전자보조시스템이 결합된 피엘케이테크놀로지의 옵티언(모델명:OPTIAN)



삼성, “놀라움의 여정으로”

삼성은 ‘놀라움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85형 울트라HD TV를 비롯한 프리미엄 가전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했다. 삼성전자의 부스에서는 입구부터 85형과 98형 UHD TV를 배치해 마치 현실 같은 영상과 웅장한 규모로 관람객을 맞이하며 차세대 TV의 면면을 보여줬다.

스마트 TV 전시공간에서는 스마트폰의 요리법을 TV의 큰 화면으로 보거나 아이들이 TV를 이용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실생활에 적용된 스마트 TV의 유익함을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한 단계 진화한 디스플레이 제품도 선보였다. ‘컬러 리얼리즘’을 보여주는 시리즈9 캘리브레이션 모니터, 동시에 10곳의 터치를 인식하는 터치 모니터 시리즈7, 콘텐츠에 따라 화면을 가로, 세로로 바꿔 가며 쓸 수 있는 광시야각 모니터가 관람객의 발길을 잡았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없던, 세상을 바꾸는 삶의 혁신’을 모토로 프리미엄 생활가전도 대거 전시했다.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회전하는 모션싱크 청소기, 탄산수를 만들어주는 지펠 스파클링 냉장고, 냉장–냉동–김치보관을 한 번에 하는 지펠 T9000 김치플러스, 버블샷3 W9000의 세제 자동투입, 물을 사용하지 않는 ‘에어 스피드 드라이’건조방식 등을 선보여 주부와 예비 신부들의 관심을 듬뿍 받았다.

그 외 모바일 전시공간에서는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3와 시계형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를 전시해 전자 · IT산업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평을 받았다. 갤럭시 노트3는 새로워진 ‘S펜’과 5.7형 대화면의 조화로 더욱 편해진 멀티태스킹 경험을 선사했고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기어는 일상 속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쉽고 편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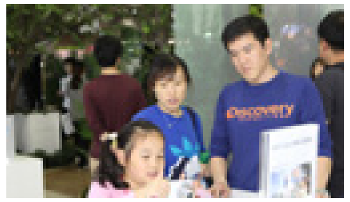
또한 미러리스 카메라의 화질과 스마트폰 시장 1위의 기술력을 결합한 신개념 갤럭시 NX 카메라, 스마트폰을 프린터에 가져다 대는 것만으로 폰 안에 있는 문서와 사진은 물론 E–mail과 SNS 내용까지 출력이 가능한 근거리 무선통신기술(NFC)기반 스마트 프린터 NFC도 볼 수 있어 새로운 전자 · IT제품의 사용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삼성전자의 잇달은 신제품 발표는 전자전의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언론 및 대중의 이목을 끄는 행보였다. 개막 첫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수준인 3.7㎜베젤의 상업용 디스플레이(LFD)를 출시하여 글로벌 LFD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삼성의 면모를 보여줬고 전시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라운드’가 세계 최초로 공개돼 큰 관심을 받았다.

▲냉장실을 인케이스와 쇼케이스의 이중공간으로 분리한 삼성의 푸드쇼케이스

▲98형 UHD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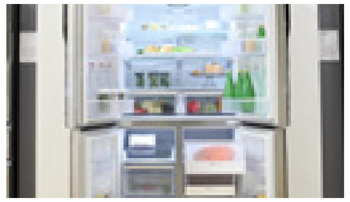
▲근거리 무선통신기술(NFC) 기반 스마트 프린터 NFC


▲갤럭시 NX카메라를 체험 중인 관람객

▲갤럭시 노트3를 체험하고 있는 관람객들

▲세계 최초로 공개된 갤럭시라운드

▲ 스마트 TV를 시연 중인 관람객


▲냉장–냉동–김치보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지펠 T9000 김치플러스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기어를 체험하고 있는 관람객

▲본체–바퀴가 따로 움직이는 삼성모션싱크청소기

▲많은 관람객들이 모인 삼성전자 부스 전경

LG, “세계 최초부터 세계 최고까지”

LG전자는 올해 OLED TV, UHD TV, G2, 뷰3, G Pad, 정수기 냉장고 등 프리미엄 전략제품을 대거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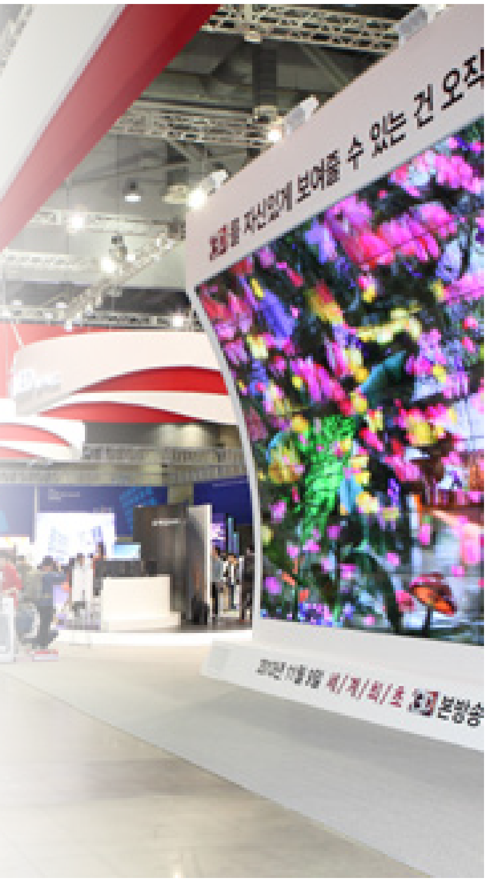
LG전자의 전시장 입구에는 55형 3D 사이니지 제품 49개를 이어붙인 초대형 3D 어트랙터가 관람객들을 사로잡았다. 지상파 3D 정규 편성을 앞두고 LG만의 앞선 3D 기술력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계 최대 크기의 77형 곡면 올레드 울트라 HD TV를 전면에 내세워 ‘곡면 올레드’와 ‘울트라 HD’가 융합된 최고의 기술력을 선보였고 올레드 기술에 디자인 컨셉을 강조한 갤러리 올레드 TV도 전시했다. 이처럼 LG전자는 다양한 올레드 TV를 전시해 차세대 디스플레이시장을 선도하는 LG전자의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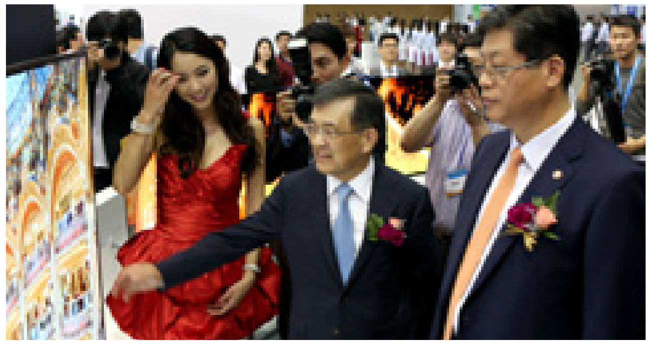
LG전자는 ‘쉽게 찾고’, ‘편리하게 즐기는’ 스마트 TV 시연공간을 마련했고 관람객들은 음성인식으로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Q보이스, 휴대폰과 TV화면을 바로 연결해주는 태그온(Tag On), 방영 중인 콘텐츠를 인기/채널 순으로 정리해주는 나우온 등 차별화된 LG스마트 TV의 기능들을 직접 시연해볼 수 있었다.

안드로이드 젤리빈 OS를 탑재한 LG 시네마 3D 구글 TV도 전시했다. 이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익숙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고 눈이 편한 시네마 3D의 장점을 활용해 모든 게임을 3D 입체영상으로 변환해 주는 3D 게임 체인저 기능도 적용되어 있다.

또한 55형 IPS 사이니지 8대를 연결한 세계 최소 베젤 비디오월 공개와 더불어 21:9 시네뷰를 적용한 소형TV/모니터/일체형PC 풀라인업을 선보이는 등 풀HD 해상도를 지원하는 울트라, 태블릿과 노트북의 장점을 갖춘 탭북 등 전략 IT 제품도 대거 전시했다.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LG G2, 뷰3, G Pad 8.3 등 하반기 주력 프리미엄 스마트 제품을 선보였으며 디오스 정수기 냉장고, 트롬 6모션 터보샷 세탁기 등 차별화한 신기술로 사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 스마트 가전제품을 소개했다.




▲LG전자 부스방문 주요인사

▲LG시네마 구글 TV

▲직관적인 UX로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LG G Pad 8.3'

▲3D TV를 체험중인 관람객들

▲LG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관람객들

▲울트라 HD TV

▲스마트 TV시연공간을 체험 중인 관람객

▲세계최대 77형 LG곡면 OLED TV

▲인터랙티브 스마트TV를 체험하는 관람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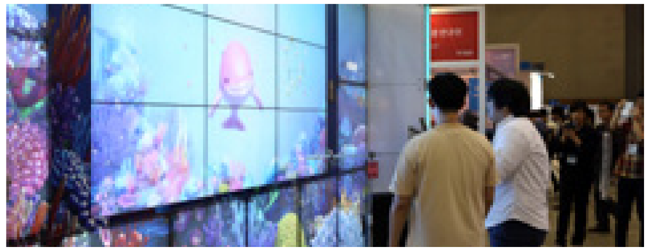
▲디오스 정수기 냉장고

▲3D안경을 착용 후 직접 3D 화면을 보고 있는 관람객들

기술로 오감을 만족시키는 기술의 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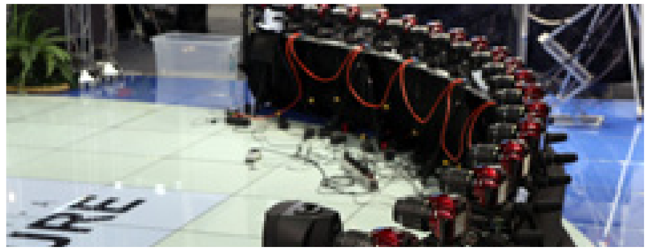
ICT관에서는 우리 실생활에서 실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볼 수 있다. 첨단 기술을 융합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콘텐츠는 아쿠아리움 속 동물 캐릭터와 실제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며 사각지대 없이 대상자를 정면으로 포착 가능한 전방위 카메라의 출품은 우리 생활의 안전함을 보장해 줄 새로운 기술이다. ICT관은 실생활에 적용되어 대중들에게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편리함과 유용성을 느끼게 해 줄 제품과 기술이 돋보이는 관이었으며 ICT기술이 우리 경제 성장에서 분명 빼놓을 수 없는 기술임을 알 수 있었던 자리였다.

전자 · IT산업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것은 '멀티미디어 기술'이다. 멀티미디어 기술은 이미 우리 삶에 스며들었으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이 지속적으로 등장, 발전하고 있다. 일정 공간 내 정중앙에 설치하면 모든 청중에게 동일한 음압과 음질을 제공하는 스피커는 위치별 소리 음압차를 해결했으며 카메라 영상센서를 활용한 첨단운전자 보조 장치는 앞 자동차 또는 장애물 등과의 간격이 좁아지거나 차선을 이탈할 경우 운전자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하게 해준다. 또한 옷걸이 모양으로 악취제거와 세균 박멸 기능이 있는 기능성 옷걸이와 20대 청춘들의 빛나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계단이동로봇, 험지탐사로봇, 실버케어를 위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로봇 등은 우리 정보통신기술의 미래와 이 우수한 인프라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보여주었으며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내 최초 애니로보와 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미디어콘텐츠를 선보인 레이그리프

▲틸트 LCD와 Wi-Fi/NFC 탑재로 사용이 편리해진 파나소닉의 '루믹스 GF6'



▲미디어네이처의 타임슬라이드 및 오브젝트 VR시스템

▲독창적인 기술개발로 이루어진 신개념 슬림스피커를 선보인 엑셀웨이

▲미국 캠코더시장 점유율 1위 컴팩트 사이즈 카메라를 선보인 고프로

▲일정공간 내 동일 음압, 음질, 음성 명료도를 가진 루시드 스피커를 선보인 뮤솔버스

▲영상처리 기반의 전방위 카메라관련 원천 특허를 보유한 나노포토닉스

창조경제의 핵심키워드 소프트웨어/모바일/컨버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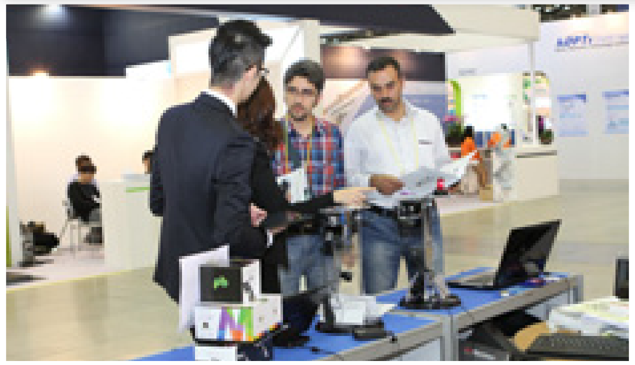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모바일, 컨버전스는 실제로 우리 전자 · IT산업의 미래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모바일과 컨버전스는 최근 스마트폰 및 스마트패드 등이 부상하며 기술융복합의 결정체가 되어 우리 IT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SW/모바일/컨버전스관에 참가한 출품업체 중에는 세계 최초의 상용화된 무선네트워크 기반 홈서비스 로봇과 일반 이어폰과 달리 소리가 직선으로 전달되지 않아 귀가 편한 역방향 스피커방식 이어폰을 볼 수 있다. 이 밖에 다수의 기업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개발한 세계 최고, 세계 최초의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을 즐겁게 했으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통한 창조경제의 실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무선네트워크 기반 홈서비스 로봇, 유진로봇 아이로비

▲비바엔에스의 국내 최초 유무선 통합 웹성능 관리솔루션

▲세계 최초 기존 전기배선 변경 없이 원격 조명제어 스마트폰 앱을 출시한 반디통신의 바이어 상담 현장

▲자동차IT융합기술을 선보인 아우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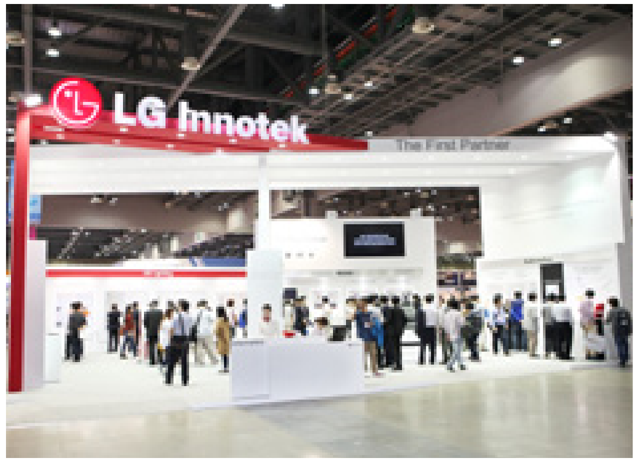


▲휴비텍의 차량용 블랙박스를 살펴보는 해외바이어

선진 기술 보유한 우수 중기, 부품소재산업 발전에 한 획 그어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을지 모르나 수많은 바이어들의 발길이 멈추었던 데는 삼성, LG와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뒤에서 그들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지원군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자랑하는 부품소재장비관의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부품소재장비관에서는 각 분야의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들이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국내 최초 개발 및 양산 적용과 더불어 100% 국산화로 실현된 로타리 딥 스위치&미니 로타리 딥 스위치로 6년 연속 전자전에 참가한 성문일렉트로닉스(주), 최상의 성능과 설치의 편리성, 가격경쟁력까지 보유한 세계 최초 제품 안튜나를 출품한 한국광성전자 등을 비롯해 보안시장 뿐만 아니라 의료 · 로봇 · 국방 분야의 적용이 기대되는 세연테크의 카메라 영상장치 IP카메라 모듈까지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제품들을 만든 우수한 부품들이 한데 모여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퀄컴, 산요전기, 노이즈텍, 요꼬가와전기, 몰렉스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 참가가 두드러져 참관객 및 해외바이어의 주목을 받았다.



▲차세대 차량전장부품, LED조명 무선제어시스템을 선보인 LG이노텍

▲세계 최고 수준의 SM(Sensor Module) 및 MLCC를 선보인 삼성전기

▲3D 공간터치기반 문자입력 기술 및 kw급 무선전력전송시스템 기술을 선보인 전자부품연구원(KE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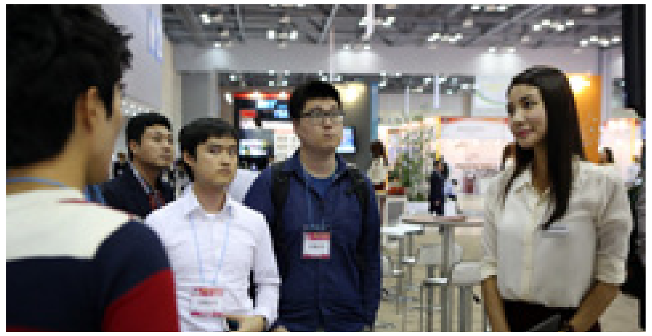
▲플렉시블 OLED조명 및 건물에너지 소비진단 및 커미셔닝 기술을 선보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세계적 수준의 무선통신 측정기기, 계측기술을 보유한 요꼬가와전기

▲15개국 25개의 R&D 센터를 운영중인 글로벌 커넥터 기업 몰렉스

▲국내 유일 RF, Power 부품을 동시에 개발 제조가 가능한 회성코일파츠

▲모바일기기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온습도센서를 선보인 센시리온코리아



▲스냅드래곤 800 프로세서, Internet of Everything을 선보인 퀄컴

▲서보모터, UPS 제품을 전시한 산요전기(SanyoDenki)

▲정전기발생기와 EMC테스트 시험기를 출품한 노이즈텍

▲NTC 온도센서, 가정용 에어컨/비즈용 에어컨 실내/외 온도 측정용 제품을 출시한 우한화공신가오리전자

미래먹거리 산업 World 3D Expo 최첨단 3D프린팅 기술 대거 선보여

영화, 건축, 의료, 콘텐츠 등 타산업과 융합되면서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3D산업은 미래 전자 IT 산업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지표다. 3D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많은 관람객이 북적거렸던 World 3D EXPO관에는 유수의 3D 업체들이 참가했다. 3D프린터, 데스크탑 3D프린터, 고선명 3D 미니극장 등의 출품 제품도 흥미로웠다. 또 3D융합산업협회가 지난 한 달간 동호회와 관련학계, 산업계를 대상으로 공모한 '3D프린팅 아이디어 상품제작, 경진대회' 출품작 전시도 볼 수 있어 날로 발전하는 3D산업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0인치 3D 화면을 눈앞에서 보는 경험은 관람객들에게 손에 잡힐 듯한 생생한 3D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으며 3D 분야에서 독자적인 노하우를 확보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저력이 인상 깊다는 평을 받았다.

◀우수상 – VINET 임옥빈

▲장려상 – SPAM LAB 이동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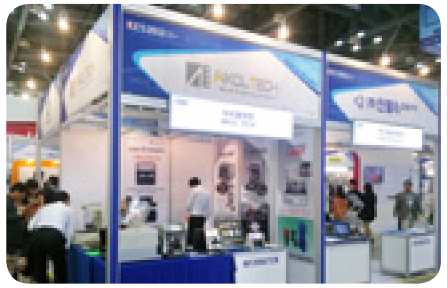
◀최우수상 – 한솔CSN 나경채

▲참가업체 언론사 인터뷰

▲3D프린터 공동관을 둘러보는 주요인사

▲3D EXPO관에 전시된 3D 방송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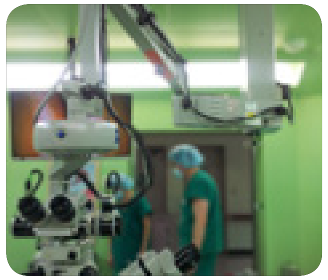
▲세계 3D프린터시장 선두주자 스트라타시스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3D 프린터 공동관 전경

▲모바일 앱 티케틀 기프트를 선보인 라임 페이퍼

▲3D광학필름, 디스플레이 모듈,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모듈을 자랑하는 엔디스


▲3D 엔진이 장착된 Surgical 입체보드로 제작한 3D 의료용 입체 모니터를 선보인 레드로버

한국전자전을 빛낸 2013년 신규 프리미엄 기업!

▲IT, BT, GT, NT의 첨단 융복합기술 R&D 연구지구인 서울특별시 마곡지구 홍보관

▲데이터복구, 산업용 장비수리의 선두주자 씨앤씨

▲세계최초 판넬 몰딩형 공법 이용 SMD 파워인덕터를 선보인 창성

▲동분야 최고의 원천소재 고분자합성 기술과 코팅기술을 선보인 켐코

▲ 휴대폰 및 산업용 안테나 분야 대표 강소기업 코마테크

▲네트워크 및 서버관련 랙 캐비넷 하우징 전문기업 디포그

방송장비산업을 통해 보는 미래전략산업

아날로그 방송 중단과 함께 디지털 방송의 시대가 열리면서 IPTV, 스마트TV와 같은 차세대 방송환경으로의 전환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관련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으며 방송장비산업은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방송장비홍보관에는 국내 방송장비 제조사 18개사가 참여해 국산 방송장비의 우수성을 자랑했다. ㈜포스티엄 코리아는 우수한 해상도를 자랑하는 랙 모니터를 출품했다. 이는 SD-SDI 신호뿐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와 컴포지트, 컴포넌트 신호를 모두 지원하고 있어 방송에 필요한 모든 신호를 이력 받을 뿐만 아니라 스피커를 내장해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현재 KBS, NHK 등 유명 방송국에서 사용 중인 기린 정밀공업(주)의 방송용 LED 특수조명과 ㈜스펙트럼 통신기술, ㈜매트릭스 라이트의 안테나 및 HD카메라용 조명 등 방송장비홍보관에서는 우수 방송음향장비업체들의 최첨단 방송장비기술을 만날 수 있었다.

▲AP모듈 탑재, 별도의 네트워크 AP가 필요없는 스마트 네트워크 콘트롤러를 선보인 유타스

▲기린정밀공업의 방송용 LED 특수조명

▲ 컴픽스의 국내 최초 방송용 High-End급 문자발생기

▲에펠의 2.4기가 CDMA방식을 사용한 세계 최초 제품 무선마이크 & 엠프

▲800x480의 우수한 해상도를 자랑하는 포스티엄 코리아의 랙 모니터

▲ 방송장비홍보관 전경

섞으면 돈이 되는 스마트융합산업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엑스포럼이 공동 주최한 스마트융합산업전은 스마트산업 대표 전시회로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방송, 통신, 스마트 용품(액세서리), 모바일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첨단 산업의 다양한 기업군 50여개사가 참가해 큰 호응을 얻었다.

스마트융합산업전에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의 컴퓨터모바일융합과와 재단법인 울산문화산업개발원, 충남스마트콘텐츠센터가 참여해 3D 입체애니메이션 및 스마트 콘텐츠를 전시했고 이밖에 ㈜토리, ㈜비욘드테크, ㈜트로스비전, 서커스컴퍼니, ㈜유누스, 헵시바㈜, 세경이브이㈜가 참여해 제품의 품질을 자랑했으며 특히 니콘이미징코리아는 무빙스튜디오를 전시해 관람객들이 카메라와 각종 렌즈, 액세서리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스마트융합산업전 내 다양한 체험관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아 대중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남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서는 전자 · IT산업이 적용된 시니어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며 스마트시티관은 ICT기술로 도시의 기능을 네트워크화 한 발전된 도시 기술을 홈, 빌딩, 오피스 분야의 모델관으로 만들어 많은 관람객들이 이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또한 전시기간 동안 창조경제 융합산업관에서 개최된 스마트 융합기술세미나는 창조경제와 융합산업, U-health 산업, 스마트 미디어 산업, 융합기술의 결정체 – 스마트시티의 네 가지 주제로 나뉘어 관련 업계 산학연이 그들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나누는 기술정보 교류의 장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

▲ 고령친화제품을 체험중인 관람객

▲스마트융합산업전에 전시된 EV CAR

▲ 스마트융합기술세미나 전경

▲무빙스튜디오, DSLR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 체험이 가능했던 니콘이미징 코리아

▲증강현실 관련 소프트웨어, 상품 카탈로그, 잡지를 선보인 서커스컴퍼니

▲정신생리학적 반응 측정/분석 시스템, 거짓말탐지 시스템을 선보인 바이브라시스템

10년 후 대한민국 전자·IT미래를 디자인하는 Techno-Fair 대학관

2013한국전자산업대전의 Techno-Fair 대학관에는 이론을 기반으로 기술 상용화에 나서는 대학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국대학 중에서도 선별된 대학들로 최근에 출원된 미공개 특허기술을 우선 공개하여 산학간의 공동연구,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등을 추진했다. 20개 참가 대학에서는 총 700여건의 미팅이 있었으며 이중 40여건이 심도 깊은 상담으로 이어졌다. 참관객 미팅은 카이스트가 약 1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려대학교와 광운대학교가 100건, 강원대 80건, 호서대와 서강대, 중앙대가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술에 대해 글로 보기보다 직접 만지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실의 교수 혹은 연구원들이 직접 현장에 참가, 부스에 상주하여 상담을 진행했기 때문에 더욱 유용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었다고 방문객들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KAIST의 기술인 '사용자-디지털 사이니지간 인터랙션' 기술, 중앙대학교의 '악천후/저조도 영상개선' 기술, 서강대학교의 '실시간 컴퓨테이션을 통한 인공생태계' 기술 등에 관람객들은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정 회사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앞세워 명확한 타겟팅과 니즈를 반영한 대학의 부스는 더욱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중앙대학교의 '악천후/저조도 영상개선' 기술은 CCTV나 블랙박스 업체의 방문이 많았으며 영남대학교의 '시선일치 영상통화 장치' 기술은 휴대전화 관련 업체의 러브콜이 쏟아졌다.

한국과학기술원은 모든 태블릿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인 스마트 이북 인터페이스를 전시했고 부산대학교는 MP3 형태로 압축된 오디오 파일을 시간영역으로 변환하지 않고 디코딩과정에서 음정과 템포를 변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 이 외에도 세종대학교, 고려대학교, 강원대학교, 경희대학교, 호서대학교, 서강대학교, 숭실대학교 등이 참여해 다양한 기술을 선보여 전자전을 더욱 빛나게 했으며 이들의 기술은 수요 기업과 연계되어 결과물을 통한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참가대학들은 직접 학교 자료집 배포를 하며 전시장 내를 순회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 선도 대학으로서 진취적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이 이어졌다.

▲Multi-Array를 사용하여 음원을 데이터화, LED를 통해 통신하는 기술을 선보인 경희대학교

▲광운대학교 전경

▲CCD 영상인식기술 등 지능형 전시조명 시스템을 선보인 강원대학교

▲MP3로 압축된 오디오 파일을 디코딩과정에서 음정과 템포를 변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인 부산대학교

▲악천 후 영상개선 기술을 선보인 중앙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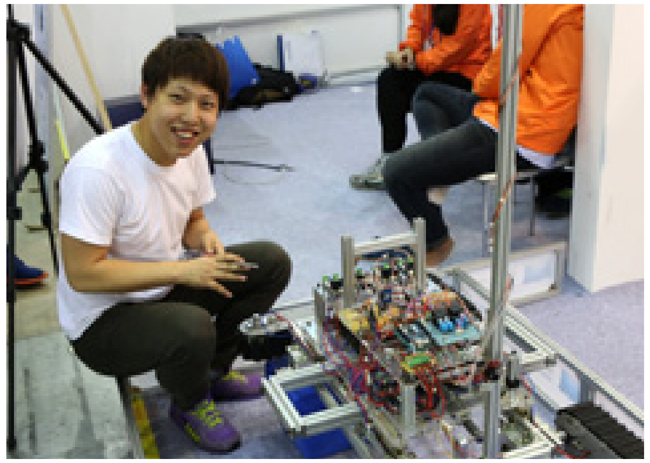
▲숄더 서핑으로 인한 잠금해제/비밀번호 입력 차단 기술을 선보인 세종대학교

아시아 직업교육의 허브! 동양미래대학

10년 연속으로 참가한 동양미래대학교는 실무능력(Competence),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Skill), 공동체의식(Community Oriented Mind)을 갖춘 "3C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국내 최고 수준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기계공학부, 로봇자동화공학부,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전산정보학부가 참여하였으며 로보틱스, MCA, Micro Mouse, EI 등 세부 전공동아리가 자신들의 작품을 선보였다.

매년 다양한 교외 경진대회에 출품하여 다수의 수상경력을 보유한 로봇자동화공학부의 전공동아리 MCA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자동제어 및 스마트 모바일 응용 제어 등을 연구하고 실제 기능을 구현 제작하는 스터디 그룹으로 제어 프로그래밍 실무 능력 향상과 Soild Works를 이용한 기구설계 그리고 CNS 및 선반, 밀링가공으로 작품을 직접 제작하여 창의적인 작품 개발 및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동양미래대학의 계단이동 로봇

▲ 동양미래대학의 출품 제품을 보고 있는 관람객들

창조경제의 거점, 혁신기업 공동관

명품 소형가전관

주부뿐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도 그냥 지나치질 못할 매력적인 제품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명품 소형가전관으로 소형가전산업의 지속 성장 및 시장혁신형 소형가전분야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2013 소비자가 선정한 우수 소형가전 제품들이 대거 전시되어 관람객 및 바이어들의 이목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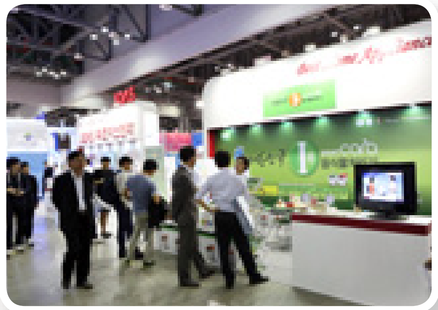
정교한 네비게이션 카메라 장착으로 자기 위치를 정확히 인식해 청소할 경로를 빈틈없이 계산하는 유진로봇의 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 아르떼', 국내 유일 전기면도기 브랜드인 조아스 전자 등이 참가해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을 자랑했다.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기업관(NEP)

신제품 인증마크(New Excellent Product)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해주는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마크이다. 이를 획득한 업체들이 대거 참가한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기업관(NEP)에는 국내 최초의 유무선 통합 웹성능관리 솔루션이자 웹사이트 성능분석이 가능한 관리시스템 ㈜비바엔에스의 아르고스, 고효율 · 고출력 · 초경량의 LED램프인 아이스파이프(주)의 LED공장등 등 새롭고 놀라운 신제품들의 향연이 펼쳐졌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관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관에는 서울지역 창업보육지원센터 입주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미래 발전가능성과 잠재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이 참가해 기술을 선보였다. SBA관 출품업체 이젠컴즈의 근거리무선통신(NFC)기술을 이용한 유기견 방지 SNS플랫폼 기반 어플 및 조도를 예측하여 점등, 소등을 자동으로 하는 엘이디세이버의 조명시스템 등 미래 강소기업의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명품 소형가전관

▲NEP신제품인증관

▲서울산업통상진흥원관

▲LG, 삼성, 아이로봇과 경쟁중인 유진로봇의 프리미엄 로봇청소기

▲NEP신제품인증관 참가업체 (주)비바엔에스

▲유기견 SOS, 주치의 기능 등 유용한 정보와 SNS플랫폼을 제공하는 이젠컴즈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관

산업과 문화가 융합 발전하는 창의와 혁신의 창조융합산업단지로 발전하기 위한 대표기업들을 선정, 창조경제의 거점이 되는 기업들을 선보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관에는 국내 최초의 교육용 기상관측시스템을 출품한 코리아 디지털(주) 등 다양한 기업들의 참가가 눈에 띄었다. 특히 KES어워드상을 수상한 ㈜초이스테크놀로지는 아이폰 뿐 아니라 안드로이드기기까지 지원하는 호환성을 가진 엑스포인터를 선보였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관

인천지역 정보통신산업을 지원 육성해 성장기반을 확충하고자 관내 소재 우수 기업들을 선보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관에는 국내 최초 개발된 Network Analyzer Protek A333(3GHz)의 Upgrade 제품을 출품한 ㈜지에스 인스트루먼트와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과 같이 (한국어)안내 방송을 듣지못하는 이용객들에게도 안내 방송을 전할 수 있는 음파 발생기를 개발한 ㈜아이스플럽 등이 참석했다.

참가 기업들은 모두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산업단지공단,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우량 중소벤처기업들로 이들은 기관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기술성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뛰어나 기대와 촉망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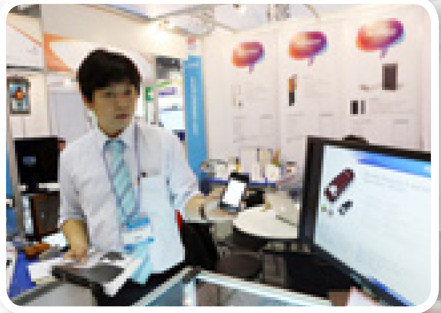
벤처기업협회관

벤처기업협회관에서는 제2의 벤처도약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벤처활성화를 위한 협회 지원책으로 국내 대표 벤처기업들을 선정해 그들의 우수 제품 및 기술을 선보였다. 우량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협회관에 반디통신기술(주)가 세계 최초로 기존 건물의 전기배선 변경 없이 원격 조명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폰 조명스위치를 출품했다. 또한 튼튼하고 부드러운 바디 설계로 100% 국내 제작된 GDS전자의 LED확대경이 벤처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줬다. 그 밖에도 아이미디어, ㈜비앤에스프로, ㈜스마트애드인 등 다양한 벤처기업들이 참가해 국내 벤처기업의 건재함과 제2의 도약 가능성을 보여줬다.

▲산업단지공단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벤처기업협회관



▲산업단지공단의 참가기업 (주)초이스테크놀로지의 제품 시연 모습

▲언론의 취재를 받고 있는 참가 기업

▲참가 기업과 바이어의 비즈니스 상담

국제정보디스플레이전시회, iMiD

국제정보디스플레이전시회(iMiD)는 올해 8개국 108개사가 총 307개 부스 규모로 참가해 LCD, OLED, Flexible, Touch Display 등 디스플레이 패널과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 재료 및 장비 등을 전시했다. 전시 참가업체들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해외바이어들을 초청한 1:1 무역상담회도 열렸으며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대 디스플레이 업체로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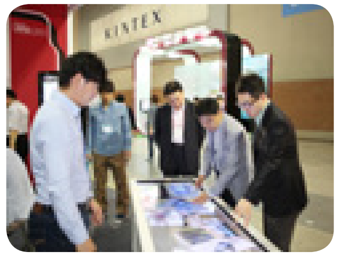
삼성디스플레이는 55인치 곡면 풀H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패널을 비롯해 98 • 85인치 초고화질(UHD • 3840×2160)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모니터용 31.5인치 UHD LCD 패널, 갤럭시노트3 용 5.68인치 슈퍼 아몰레드(AMOLED) 패널 등을 전시했다. 또한 삼성디스플레이는 대학생 250여명을 초청해 제품 전시와 함께 강연, 체험을 통해 회사를 대학생들에게 알리고 우수 인재를 미리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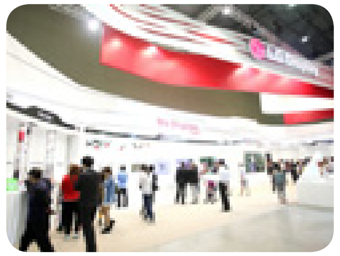
이에 맞서 LG디스플레이도 55인치 곡면 OLED 패널을 비롯, 84 • 65 • 55인치 UHD 패널, 47인치 투명 LCD, 세계에서 가장 얇은 3.6㎜ 베젤(테두리 두께)의 대형 3D 비디오월(Vedio Wall) 등 다양한 신기술 제품들을 전시해 기술력을 뽐냈다.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기술에 강점을 가진 머크도 "완벽한 픽셀"을 주제로 iMiD에 참가해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을 위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했다. 머크가 선보인 울트라-브라이트니스 FFS(UB-FFS)는 높은 광투과율을 자랑하는 프린지필드스위칭(FFS) 기술이다. 현재 양산이 가능한 UB-FFS는 기존 FFS LC 물질 대신 VA LC 물질을 사용하며, 최적화된 패널 설계가 반영된 절전형 디스플레이 기술로 광투과율을 최대 15% 향상시켜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색재현률과 터치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 외 제13회 정보디스플레이대상 수상작 전시관, Touch Pavilion 등의 테마관을 운영해 일반 관람객이 디스플레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2013 국제정보디스플레이전시회는 전시기간 동안 해외바이어 9개사 33명, 국내업체 32개사 50명이 무역상담회와 리셉션에 참가해 약 13,485만 달러에 달하는 상담실적(실계약금액: 3,653만 달러)을 달성하는 성과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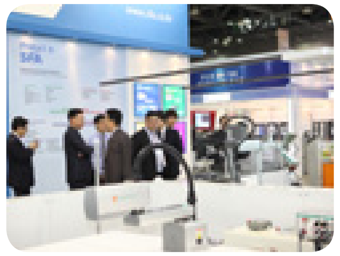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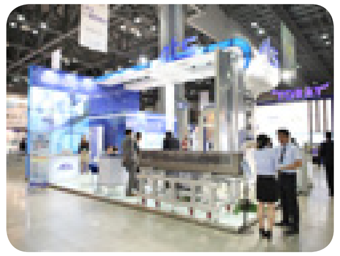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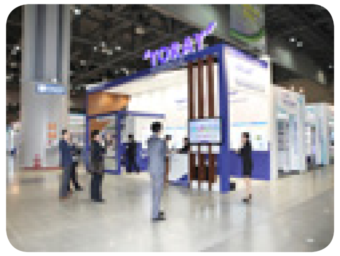
국제반도체대전, iSEDEX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연구조합이 주관한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 제15회 국제반도체대전(Int'l Semi-conductor Exhibition, i-SEDEX)에서는 국내외 반도체 기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총 5개국 131개사가 450개 부스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부하이텍 등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들은 물론 페어차일드, 앰코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기업들도 참여했다.

한국전자전과 함께 열렸던 i-SEDEX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와 세계 시장 1위에 도전하는 시스템반도체 품목들을 볼 수 있는 반도체 부문 가장 큰 전시회로써 최첨단 반도체 소자, 장비, 재료, Fabless를 포함한 관련 주변기기 등이 전시되었고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3D-VNAND, 8Gb LPDDR3 모바일 D램, 10나노급 64Gb MLC 낸드플래시 등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전시를 비롯해 기술세미나와 무역상담회, 채용상담회도 마련되었다. 기술세미나로는 반도체 장비 안전표준 교육, ISMP 등이 열렸으며 채용설명회에는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이 모두 참여해 자사의 채용과정과 일정을 소개했다. 특히 올해에는 시스템-반도체협력의 날(13일)을 정해 시스템반도체 기업과 시스템 기업이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전시기간 동안 해외바이어 20개사 42명, 국내업체 29개사 42명이 무역상담회에 참가하여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상담실적을 달성하는 등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MEDIA COVERAGE 언론보도

MBC, KBS, SBS의 주요뉴스로 방영되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전자신문, 이투데이, 이뉴스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아주경제, 서울경제, 경제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데일리, EBN, 비즈니스워치, 경기일보, 케이벤치, 머니투데이, 뉴스핌, 아시아뉴스통신, 아이뉴스24, 환경일보, 노컷뉴스 등 국내 주요 일간지 및 온라인 매체를 비롯하여 The national, Aljazeera, CDR info, Business korea, Korea it news, The dong-a ilbo, korea it times, Agence de presse yonhap, China Daily, Shenzhen 24 Hours 등 중국, 미국 IT전문 매체 등 총 400여회 보도

구매교류의 큰 장터, 해외기업 참가 확대 및 해외바이어의 방문 줄이어

올해 한국전자산업대전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도 국내 전자 · IT 산업의 수출확대 및 판로개척을 위해 세계 19개국 56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글로벌 기업/유력바이어를 대거 유치해 한국 전자 · IT 산업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드높였다.

해외기업으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통신칩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로 모바일 업계 글로벌 최강자로 자리하고 있는 퀄컴은 한국전자전에 최초 참가했다. 아우디는 국내 공식 딜러 태안모터스와 함께 국내 최초로 모터쇼가 아닌 전자 · IT 전시회에 20부스 규모로 참가해 글로벌 트렌드에 걸맞는 자동차 · IT융합기술을 화려하게 선보였다. 전 세계 16개국에 걸쳐 40개의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15개국에서 25개의 R&D 센터를 운영 중인 글로벌 커넥터기업 몰렉스도 참가해 기술력을 뽐냈다.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증가하는 일본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 대표 강소전자 · IT기업들도 한국전자전에 대거 참석했다. 세계적인 산전그룹인 요꼬가와전기(주)는 한국전자전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무선 통신 측정기기, 계측기술을 선보였으며 산요전기(주)도 일본 특유기술의 서보모터, UPS제품을 전시했다.

중국, 대만 현지기관과 협력하여 매년 50여 부스 규모 공동관으로 구성하여 참가하고 있는 중화권 부품 소재 기업관은 올해에도 그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우수한 전자 · IT 부품 소싱을 원하는 국내 바이어들을 맞이했다.

▲중국관

▲대만관

▲중국 레이저분야의 선두기업인 한스레이저

▲일본 대표 강소전자 · IT기업 SEIREN

▲캐나다 브로커 포럼

▲LG전자 평택사업장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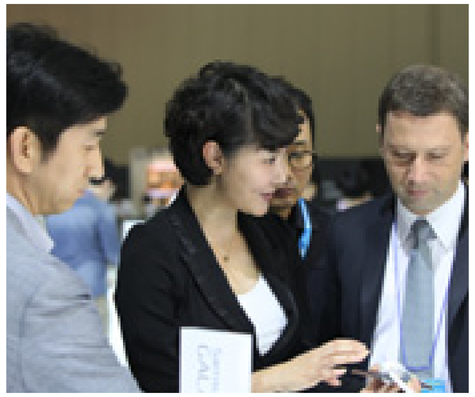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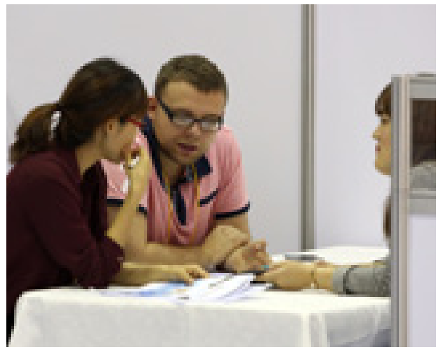
중국 레이저분야의 선두기업인 한스레이저, 국내 대기업에도 관련 센서, 칩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우환화공신가오리전자, 대만 CCTV, 비디오 모니터 선두기업인 quadrant Components 등 한국기업과의 경쟁에 자신감이 생긴 중화권 기업들의 신규 참가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4년 연속 한국전자전에 참가하는 홍콩 대표 B2B 마켓플레이스 유통 기업인 Hongkong Inventory를 비롯한 현지 중소 부품제조 기업들도 올해 더욱 발전된 제품으로 한국전자전을 찾았다.

글로벌 진성바이어를 직접 발로 뛰어 발굴하는 한국전자전은 한국전자전은 금년에도 일본 무라타제작소, 반다이 남코(팩맨, 건담, 철권 등 게임제작 및 엔터테인먼트회사)를 비롯하여, 필리핀 Manila Electric Company(필리핀 최대 전략배전기업), 카타르 Qatar Mobile Telecom(중동 대표 통신기기, 통신사) 등 약 20여 개국의 메이저 IT융합 글로벌 바이어를 다이렉트로 초청하여 국내 참가업체들과 비즈니스매칭을 적극 지원했다.

또한 국내 참가업체 초청 해외바이어 맞춤형 행사를 통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만족도 제고와 해외 유력바이어 삼성/LG전자 사업장 방문을 통한 대한민국 위상 강화와 신시장 수요 창출을 위한 사업장 투어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한국전자산업대전을 찾은 바이어들에게 또 다른 비즈니스 확대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3,000여명의 해외바이어가 참석하여 국내 업체들과 18억 달러 상당의 무역거래 상담을 하였으며 계약액은 약 2억 5천만 달러를 달성했다.





Korea Electronics Show 2014

전/시/회/개/요

전시회명	제45회 한국전자전 Korea Electronics Show 2014
기 간	2014년 10월 14일(화)~17일(금), 4일간
장 소	KINTEX 제1전시장(3홀~5홀)
규 모	600개사 1,500부스 (국내 450개사 / 해외 150개사)
주 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세계속의 경기도
주 관	KEA
후 원	NIPA, ETRI, KETI, KOSA, FKII, KOSEA, IPAK, KISA
해외협력기관	CEAC, CCPIT, CECC, HQEW(중국), TEEMA(대만), JESA, JMA(일본), HKTDC(홍콩), AEECC(아시아전자전협력회의), IFA(독일), CES(미국), RATEK(러시아), CMAI, TEMA(인도), VEIA(베트남)
전시분야	Multimedia, ICT, Parts & Materials, Software, 3D, Broadcating, Smart Convergence, Semiconductor, Display

참/가/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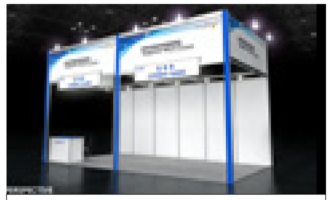
신청기한 : 2014년 7월 31일(목)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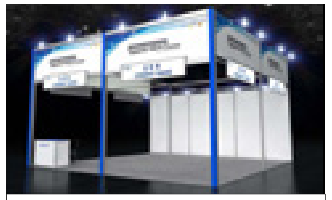
참 가 비				
전시제품 구분			단가/부스(9㎡)	비고
국내업체	독립부스		240만원	– 국내업체: 부가세 별도 – 독립부스: 면적만 제공 – 조립부스(기본형): 면적+기본장치 제공 – 조립부스(프리미엄): 면적+목공장치 제공
	조립부스	기본형	280만원	
		프리미엄형	320만원	
해외업체	독립부스		US$ 2,600	
	조립부스	기본형	US$ 3,200	
		프리미엄형	US$ 3,800	

※ 전시제품의 제조사가 해외업체일 경우 해외업체의 참가비를 적용.
※ 해외업체 단가를 한화로 입금 시 환율은 입금일의 대외 송금 환율을 기준으로 함.
※ 단, 프리미엄부스는 2부스 이상 신청 가능

부/스/시/안

▲기본(1부스)


▲기본(2부스)


▲기본(4부스)

▲프리미엄(2부스-A형)

▲프리미엄(2부스-B형)

▲프리미엄(4부스)

※ 상기 디자인 및 시공 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참/가/비/할/인/혜/택

KEA 유료회원사 할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회원가입을 필한 정규회원의 경우 총 참가비 30% 할인 (※단, 할인은 6/27(금)까지 참가비 50%이상 납부한, 100인 이내 중소기업에 한함. 중복할인 없음)
조기신청 할인	10%할인: 2014년 3월 28일(금)까지 5% 할인: 2014년 5월 30일(금)까지
VIP고객 추가할인	KES 3년 연속 참가 중소기업 대상 5% 추가 할인(2012, 2013, 2014연속 참가)

※ 기한 내 계약금을 납부한 참가업체만 할인 적용, 중복할인은 순차적으로 적용

참/가/비/납/부

계 약 금 온라인 참가신청 후 15일 이내 50% 납부
잔 금 8월 14일(목) 까지 납부

참가비 납부 은행 계좌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원화	국민은행	598601-04-001578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참가 신청시 계약금 50%는 15일 이내 납부하고 기한까지 잔금 납부
※ 7월 31일(목) 이후 신청 시 참가비 전액 납부
※ 참가비 납부는 반드시 업체명으로 입금 납부
※ 송금수수료는 참가업체 부담

참/가/문/의

KES사무국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전시마케팅팀(Exhibition & Marketing Team)
주 소 (121-835)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 11
TEL 02-6388-6062~7 FAX 02-6388-6069 E-mail kes@kes.org

Since 1969

KES 2014

10.14(화) ▶ 17(금)

KINTEX

한국전자전

Korea Electronics Show

www.kes.org